

디지털시대와 북한 지역 경제 재건 전략

이봉호/ 매일경제신문 지식부 차장

한 반도 통일후 북한 지역의 경제 재건 전략은 다음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첫째는 한반도의 통일이 북한체제의 자체 붕괴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이며, 둘째는 남한이 중요한 이해 관계자로 북한 지역 경제 재건 작업을 주도한다는 전제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통일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건간에 시대적 배경은 전문가들마다 다양하게 시대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디지털이코노미시대'라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후 북한 지역의 경제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다음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싶다. 첫번째는 '디지털 천국(Digital Heaven)' 조성 전략이며, 두번째는 '디지털 기업가(Digi-Enterpriser)'에 의한 지역 개발 전략, 세번째는 '호모 디지털리안(Homo-Digitalian)' 양성을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북한 지역을 남한 지역과

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21세기에 있어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통일 한국'의 중요 거점으로 재건시키고자 하는 '통일 한국 그랜드 플랜'의 중요한 부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천국' 조성 전략

한반도 통일후 북한 지역의 경제 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자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통일 비용'이 그것이다. 통일 비용은 연구자와 연구 기관에 따라 최소 400억 달러에서 최대 2조 2,500억 달러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의 경제 성장분만의 재원을 북한 지역에 이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반도 통일 비용은 남한 GNP의 5.6%에 달한다.¹⁾ 그것은 한반도 통일 비용이 독일 통일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1) 전홍택·이영선편(1997),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 통합 전략」, 한국개발연구원, p. 43.

통일 비용 예상액은 대부분 독일식 통일 방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독일식 통일 방법을 택할 경우 엄청난 비용 부담은 남북한의 공멸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북한 지역을 21세기에 있어서 세계를 리드하는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공화국 통일 코리아'의 중요 거점으로서 재건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흡수 통일 방식보다 획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첫번째 획기적인 전략으로 북한 지역에 '디지털 천국'을 조성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디지털 천국(Digital Heaven)'이라는 개념은 디지털화된 최첨단 네트워크를 구비한 투자 자유 지역(Investment Heaven)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시 말해, 디지털이코노미시대에 있어서 이익을 올리려는 세계의 기업 및 투자가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투자 및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서 장애가 전혀 없는 비즈니스 천국이다.

'디지털 천국'은 최첨단 기술과 국경없는 세계를 이용하는 각 나라와 기업이 서로 풍요롭게 만들자는 생각에서 구축된 메커니즘이다. 이곳에는 인포스트럭처(Info-Structure)뿐만 아니라 '디지털 법' 등 하드웨어와 소프

트웨어를 구비, 세계의 디지털 기업이 지식을 창출하여 수익을 올리기 위한 최적지가 될 것이다.

북한 지역에 이러한 디지털 천국을 조성할 경우 통일 비용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북한 지역에 조성될 '디지털 천국'은 중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등 거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최적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세계 각 나라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의 현실성은 이미 입증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말레이시아의 '멀티미디어 슈퍼 코리도어(Multimedia Super Corridor: MSC)' 전략이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수도 콰라룸푸르 남쪽 30 km 정도 떨어진 곳에 푸트라자야라는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그곳에서는 1998년 개발 예정인 신공항과 콰라룸푸르 3 개소를 광케이블로 연결한 '멀티미디어 슈퍼 코리도어'가 조성되고 있다.

MSC 구상의 추진자인 마하티르 수상에 따르면, MSC는 단순히 20세기형 비즈니스 파크가 아니라 상호간에 의존하는 국제적 기업과 말레이시아 기업이 아시아는 물론 세계 고객에게 신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21세기형 다문화 웹 공간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부 기관을 멀티미디어로 연결시키고 컴퓨터에 의한 행정을 확립하여 정부 부처의 협력을 촉진시켜 시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에 충실을 기하는 전자 정부, 인터넷으로 연결된 스마트 스쿨,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가 함께하는 연구개발클러스터, 카드 한 장에 개인의 신분 증명·암호 서명·신용카드·전화·운송은 물론 클럽의 이용 한도 등이 표시되는 다목적용 국민IC카드, 원격 제조정이 가능한 엔지니어링 지원의 중추, 환경적으로 혜택을 받은 아주 편리한 금융의 천국, 원격 의료 지역 센터 등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²⁾

이러한 구상의 현실성은 마하티르 수상이 1996년 8월 1일 팔라룸푸르의 푸트라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린 '멀티미디어아시아회의'에서 입증되었다.³⁾ 이 회의에서 마하티르 수상이 MSC 구상의 전모를 소개하자, 회의에 참석한 마이크로소프트社의 빌 게이츠 회장과 IBM의 루 거스너 회장 등 50 개 이상의 세계 각 기업과 대학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즉석에서 결정하였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통해 볼 때, 통일 한국이 북한 지역에 MSC보다 획기적인 내용을 갖춘 '디지털 천국' 조성 계획을 전세계를 대상으로 공포할 경우 커다란 환영과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북한 지역 경제 재건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글로벌리즘은 기업이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전문화된 혁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적합한 지역을 선택하려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업은 전문화된 숙련 노동력·연구 및 상품화 능력·혁신을 창출하는 네트워크 및 독자적인 비즈니스 인프라스트럭처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버클리分校의 애너리 삭세니언 교수는 1994년에 펴낸 '지역적 장점(Regional Advantage)'라는 책에서, 실리콘밸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성공의 비결은 잘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네트워크형 모델 구축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⁵⁾ 다시 말해 성공 요인을 '최고의 것에 집중하고

2) MSC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dc.com.my/msc/>) 참조.

3) MSC의 새로운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scworld.com/galley1.htm>) 참조.

4) 윌리엄 F. 밀러 「시민 기업가-새로운 경제 커뮤니티의 구축」, D. 헨튼, J. 엘벌, K. 웨레슈 著, 加藤敏春 譯, 일본경제평론사, 1997), p. 34에서 재인용.

나머지는 전문 기업으로부터 구입함으로써,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세대의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 비용을 분산시키고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여 지속적인 기술 혁신 능력을 키워나가는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디지털 천국' 조성 전략의 목표는 북한 지역에 실리콘밸리와 MSC 등과 같은 역동성이 뛰어나고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형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의 구축에 두어져야만 할 것이다.

디지털 기업가(Digi-Entrepreneur)에 의한 지역 개발 전략

'디지털 천국'의 조성 전략과 함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나갈지라는 문제일 것이다. 북한 지역에 조성되는 '디지털 천국'에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처럼 정치가와 특별 이익 단체에 의한 종전 접근 방식이 아니라 비즈니스·정부·교육·지역 사회를 횡단하면서 공동 작업이 가능한 인간, 생활 그리고 비즈니스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통일 한국의 정부는 스스로 '디지털 정부'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 천국을 민간 기업의 주도로 조성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공표하고, 디지털 천국 조성을 위한 경쟁과 협력의 최적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로 안내자(Navigator)'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통일 한국의 정부가 직접 나서서 디지털 천국을 조성하려 할 경우 거둬들인 정부의 실패를 또 다시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천국의 실질적인 조성은 통일 한국의 그랜드 플랜의 일부로서, 이같은 전략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디지털 기업가(Digi-Entrepreneur)'에게 맡기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디지털 기업가는 디지털이코노미시대의 특성과 흐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21세기 유일한 자원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지식을 조직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또는 기업가를 의미한다. 이들은 미국 경제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실리콘밸리 모델의 실천적 주역으로서,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시민 기업가(Grassroots Leader)'와 같은 역

5) D. 헨튼, 전계서, p. 40.

할을 수행하는 21세형 기업가를 말한다. 그들은 경제와 지역 사회의 가교로서 협동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⁶⁾

이같은 전제 하에서 통일 한국의 정부는 우선 북한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수의 '디지털 천국' 조성 계획을 공표하고, 각 디지털 천국을 실제로 조성하는 디지털 기업가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개 모집에 응모한 디지털 기업가의 디지털 천국 조성 계획은 동등한 의결권을 가진 정부·기업·지역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통일한국디지털천국조성추진위원회'가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의 계획을 투표로 결정한다. 공개 모집에는 외국 자본과 지식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의 디지털 기업가도 배제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조인트 벤처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디지털천국조성추진위원회'는 선정된 디지털 기업가의 디지털 천국 조성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할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전략은 이미 남한 정부가 유사한 계획을 추진키로 결정함으로써 보다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최근 건설교통부는 「지역거점개발촉진법」을 특별법으

로 제정하고 관민 합동의 '지역발전종합기획단'을 발족시켰으며, 새롭게 조성되는 지방 거점도시를 500만~1,000만 평, 인구 20만~30만 명이 거주하는 최적 도시로서 개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각종 금융·세계 상의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민간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대市', '삼성市' 등 주력 기업의 명칭이 붙여진 도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디지털 기업가에 의한 디지털 천국 조성 전략을 통해 북한 지역 경제 재건의 토대로 활용할 수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호모 디지털리안(Homo Digitalian) 양성 전략

통일 한국이 21세기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국가를 지향해야만 할 것이다. 21세기의 키워드인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의 창의성으로부터 창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후 북한 지역의 경제 재건을

6) D. 헨튼, 전게서, p. 12.

위해 디지털 기업가들에 의한 디지털 천국 조성 전략의 실천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적 자원, 즉 북한 지역 주민을 창조성이 풍부한 개인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지역이 21세기에 있어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통일 한국의 중요한 일부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을 풍부하고도 새로운 지식 창출이 가능하도록 육성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저임금이라는 요소만으로는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최첨단 지식 도구와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고 있고 지식에 의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을 때만 비로소 국가에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부와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고용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⁷⁾

필자는 이와 같이 '최첨단 지식 도구와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하여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21세기형 개인'을 '호모 디지털리안(Homo Digitalian)'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그것은 호주의 역사학자인 베리 존즈의 '골드 컬러', 미국의 정치경제 학자이며 클린

턴 정부의 노동 장관을 역임한 로버트 라이시의 '상징적 분석가(symbolic analyst)'라는 개념과 유사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식을 창출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개인 육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식과 정보의 상이점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노나카 이쿠지로(野中旭次郎)에 따르면, 지식은 정보와는 달리 '신념'·'몰입(commitment)'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특정한 입장·견해 혹은 의도를 반하고 있다. 또 지식은 정보와는 달리 목적을 가진 '행위(action)'와 관련되어 있다. 즉, 지식은 달리 연관성이 있는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보와는 구별된다는 것이다.⁸⁾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통일 한국이 필요로 하는 '호모 디지털리안'이라는 존재는 '21세기에 있어서 통일 한국의 경제·사회적인 성공'이라는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한 행위(디지털 천국 조성 전략)에 관련된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개인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개인들을 통일 한국은 어떻게

7) Don Tapscott(1996), *The Digital Economy-Promise and Peril in the Age of Networked Intelligence*, McGraw-Hill, Inc., p. 9, pp. 31~32.

8) 野中郁次郎·竹内弘高(1996), 「知識創造企業」, 동양경제신보사, pp. 6~7.

해서 양성할 것인가? 특히, 반세기 이상 세계의 흐름과는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성장한 북한 지역 주민을 어떻게 해서 호모 디지털리안으로 변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의문의 답을 「디지털 이코노미」의 저자인 돈 탑스콧(Don Tapscott)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디지털이코노미시대에 있어서 학습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일과 학습이 점점 더 일체화되고 학습은 전생애에 걸친 과제가 될 것이며, 교육은 정규 학교·대학으로부터 이탈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⁹⁾

따라서 통일 한국은 물론 북한 지역의 경제 재건의 주역이 될 호모 디지털리안의 양성은 기존의 교육제도를 통해서도 쉽게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평생 고용이 약속된 교수와 기술 혁신에 관심이 없는 교사, 경쟁 없이 몇세기나 계속되어온 교육 관행에 젖어 있는 많은 교육 기관은 과거라는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입시·입사 시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남한의 교육시스템을 북한 지역에 그대로 도입할 경우, 북한 지역의 경제 재건 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한 지역의 경제 재건을 위한 디지털 천국 조성 전략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호모 디지털리안을 양성하고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천국 조성을 실제로 수행할 디지털 기업가에게 호모 디지털리안의 양성을 전적으로 맡길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미 시작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시대에 있어서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해가기 위해서 기업은 기업인 동시에 교육을 제공하는 학습의 장이 되어야만 한다. 특히, 이미 기업은 신제품의 개발·판매를 통해 소비자들을 교육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기업 교육을 통해 앞으로의 새로운 경제시스템에서 자국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지식이 전수되고 있기 때문이다.¹⁰⁾ 모토롤라, 휴렛패커드, 선마이크로시스템즈, 맥도널드 등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이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햄버거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맥도널드사는 그곳에서 연간 1만 명 이상의 사원을 대상으로 정규 대학과 동등한 교육을

9) Don Tapscott, 전계서, pp. 336~350.

10) S. 데이비스 J. 보트킹(1997), 「멀티미디어 사회의 지식 비즈니스」, p. 16.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 기업가에게 호모 디지털리안의 양성을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경쟁 기업보다 빨리 학습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은 21세기에 있어서 지식 창출을 위한 강력한 무기인 각종 디지털 기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북한 지역에 조성될 디지털 천국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호모 디지털리안을 현행 교육시스템보다 잘 육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데이터·화상·음성·비디오를 보존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컴퓨터와 인터넷을 충분히 활용할 경우, 시장경제시스템과 디지털이코노미시대에 있어서 어린이와 다를 것이 없는 상태의 북한 주민도 쉽게 지식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방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기업가에 의한 호모 디지털리안의 양성 전략은 이러한 효과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육시스템보다도 훨씬 경제적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미국 클린턴 정부는 디지털 기

반의 교육이 현재보다 30%의 많은 학생을 40%의 짧은 시간에 30%의 낮은 비용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교육시스템의 도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빨리 보다 싸게 디지털 천국의 주역인 호모 디지털리안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통일 비용의 측면에서 보아도 이보다 매력적인 것은 없다.

물론 디지털 기업가에 의한 호모 디지털리안을 양성해야만 한다는 필자의 주장에 대해서 기존의 교육 당국과 교육 기관의 종사자들은 기업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간성과 도덕 교육이 결여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기업 윤리 및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할 경우,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기업들이 보다 잘 알고 있다.¹¹⁾ 특히, 거의 모든 정보가 공개될 수밖에 없는 디지털이코노미시대에 있어서 도덕성이 결여된 기업은 디지털 시장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결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92**

11) S. 데비스, J. 보트킹, 전계서, pp. 35~40.